

# 대학과 손잡고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 동대문구, 다산시민대학 내달 개강... 매주 수 운영 경희대 희곡교실 강좌·외국어대 스페인어 강좌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범형)가 지역내 대학·기관과 함께 마련한 '2026년 상반기 대학·기관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상세 일정을 공개하고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강좌는 오는 4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제17기 다산시민대학'이다.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다산

의 삶과 여정'을 주제로 열린다. 이어 경희대학교와 연계한 클래식 인문 강좌도 4월 중 운영돼 음악과 유려 문화, 인문학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러진다. 익숙한 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시대와 도시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는 방식이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테마로 읽는 희곡교실'도 눈길을

끌는다.

1기는 4월 6일부터 27일까지, 2기는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이어져 운영될 예정이다.

희곡의 주제와 인물, 극의 구조를 이해하고 낭독을 통해 감정 표현까지 익히는 과정이라 책을 읽는 즐거움과 말로 표현하는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한 차례 듣고 끝나는 강좌가 아니라 1기와 2기를 나눠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다.

여기에 '건강한 삶의 지혜' 한방 약초 클래스도 포함된다. 이 과정은 7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한방 약초를 생활 속 건강과 연결해 함께 배우는 강좌다.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등 한방 자원이 밀집한 지역 특성에도 맞춰 강의가 단순 이론을 넘어 동대문구만의 지역 자산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도 마련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한 초급 스페인어 강좌는 저녁 시간대에 진행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청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주 기자 nice@siminibo.co.kr

# 수원시, '누구나 든든한 한끼' 돌봄 확대

### 새빛돌봄 서비스 자부담 이용자 추가식사 지원 10식 비용으로 총 12식 제공... 일반식·죽 배달

경기 수원시가 자부담으로 수인 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추가 식사를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을 영입했다.

식사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인새빛돌봄(누구나) 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식사 지원 서비스가 연인 이상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추가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이용자가 식사 지원 서비스 10식 비용인 11만원을 내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한다.

수인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일반식이나 죽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혼자 거주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 ▲수입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시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시민 등이다.

시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민간 제공기관의 사회공헌 참여로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는 기존 지원 기준을 넘어선 시민들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양성민 기자 lim@siminibo.co.kr



이승로 구청장으로부터 일곱 번째로 관계자들이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 성북구,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 문열어

### 고립·은둔가구 소문청구 역할 비대면 'AI 심리상담' 기능도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최근 지역주민의 의료용 해소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점 공간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 조성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은 서

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누구나 방문해 휴식을 취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공간에는 'AI 심리상담' 기능도 도입했다. 방문객은 비대면 방식으로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고립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복지관과 연계

한 특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정서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다.

성북점은 생명·정화·종교·사회 복지관 1층에 마련됐다. 해당 복지관은 지역내 고교사 예방과 고립가구 발굴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복지관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구청과 복지관이 고립·은둔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면서 이번 공간 조성이 이뤄졌다.

이승로 구청장은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는 생명·정화·종교·사회복지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공간이 누구나 부담 없이 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웃과 연결감을 느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립과 은둔 없는 성북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은희 기자 mmh@siminibo.co.kr

#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6곳 30일 재개장

### '서울형 정원채널' 프로 확대 주말·휴일 구민에 상시 개방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유아들이 도심 속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내 유아숲체험원 6곳을 오는 30일 재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 놀이를 통해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교육 공간이다. 구는 2015년 신장산 우뚝바위를 시작으로 총 6곳을 순차적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약 4만7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구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지는 ▲신정산(우뚝바위·계반) ▲지양산 ▲용왕산 ▲매봉산 ▲갈산 등 총 6곳으로, 축구장과 8개 면적에 달하는 6만㎡ 규모의 풍부한 숲 공간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정원채널' 프로그램과 확대해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감각을 활용한 다양한 숲 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가 생애 관할, 자연 놀이, 계절 체험 등 놀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숲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학에는 연초에 모집해 선정된 지역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하는 '기분술반'과 탐험교사 인솔하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자율술반'으로 나눠 운영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 일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구는 개장에 앞서 체험원내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 시설물 정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 이동청소년 정책 발굴 필요 노원구, 참여기구 40명 모집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9월까지 이동·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정책 발굴을 위해 '2026년 노원구 이동청소년참여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미디어반과 ▲탄소중립반과 ▲나눔 나눔반의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해 된다.

미디어반과 ▲이동 청소년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정책 제안 대안을 직접 작성하고 녹음하는 활동 등에 참여해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탄소중립반과 기후위기를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원소환·에너지 교육과 노원에너지센터, 생활용(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 교실서 학생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 경기도교육청, 자료집 보급 초·중·고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경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급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이들 위해 도교육청 취창업지원센터는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제·금융교육 교수·학습 자료집 제작·보급 ▲찾아가는 금융교육 ▲금융사기 예방 교육 ▲체험형 금융유지력 ▲금융교육 연구개발 운영 등이다.

'경제·금융교육 교수·학습 자료집'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금융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 중학교는 생활 금융 이해, 고등학교는 자산 관리와 금융 의사결정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찾아가는 금융교육'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인터넷 금융 사기 등 청년층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융 유지력'은 학생들이 금융의 기초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배우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수원·양성민 기자 lim@siminibo.co.kr

# 고립·은둔청년 '방탈출 프로젝트' 맞선

### 강동구·한빛, 업무협약 체결 참여청년 재정 지원등 동참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최근 서울청년센터 강동, (주)한빛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가칭 '청년 방탈출 프로젝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에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받고, 관계 기관과 지역자원의 연계를 강화해 고립·은둔 청년의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맞춤형 상담, 자립, 자활을 원할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센터 강동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스텝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방탈출 프로젝트를 운영해 청년의 성장을 돕고 경제·사회적 자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한빛은 지역사회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재정적으로 돕고, 사업 운영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보안 IT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상생하는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청년들이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인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bo.co.kr

# 강서구, 생활체육교실 확대 파크골프·리닝 종목 신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구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원하는 구청의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운영 종목은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골프 ▲복수 ▲태권도 ▲아침체조 ▲여섯뜻살 등이며, 특히 올해는 파크골프와 리닝 종목을 신설해 구민의 다양한 수요와 여가 트렌드를 반영했다.

신청은 23일 오후 10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강서구 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수강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4주간 진행된다. 아침체조와 여섯뜻살 수업은 11월 까지 운영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bo.co.kr

# 간추린 뉴스



조성평 구청장이 지난 19일 경료상담에서 점심 배식 봉사하고 있다.

# 강남구, 대청경로당 새인장... 편의시설 확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평)가 30년 이상 노후된 대청경로당을 내진보강과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대청근린공원에 위치한 대청경로당은 건물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던 곳으로, 구는 지난 2025년 9월~올해 2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건물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우방과 화장실 면적을 확장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마쳤다.

이번 공사를 통해 경로당 면적은 기존 156.55㎡에서 224.02㎡로 67.47㎡ 늘었다. 좁고 불편했던 식사·휴게 공간이 넓

어지면서 노인들이 한층 여유롭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실도 새롭게 정비해 사위실을 설치하고, 건물 단열 성능도 보강했다.

대청경로당은 현재 70여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구는 새로 단장한 경로당의 안정적인 정착을 축하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경료상담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bo.co.kr

# 진도군, 병원 6곳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

진도 진도군이 최근 돌봄통합지원업무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는 김화수 구수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진도한국병원 ▲진도전남병원 ▲진도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총 6개의 의료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상으로 추진하는 '진도군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골절, 낙상 등으로 입상생활이 어렵거나 중증 만성질환 등을 겪은 퇴원(예정) 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퇴원 환자의 안정적인 재가 복귀를 위한 상호 협력 ▲군민 건강증진 관련 서비스 계획, 제공, 현황,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공유 ▲회합 대상자 발굴과 연계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다.

진도=송승자 기자 whng04@siminibo.co.kr

# 하남시, 어린이집등서 체험·놀이 '손 씻기 교육'

경기 하남시보건소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역내 어린이 대상 '손 씻기 교육'을 운영하며, 오는 27일까지 지역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네이머 폼을 통해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예방부터 바른 건강예절과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개인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1~2학년이다.

어린이 대상 교육은 전문 강사가 기관을 방문해 약 40분간 진행되며, 체험과 놀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향광로션과 부박스를 활용해 손씻기 전·후의 오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올바른 손씻기 6단계인 ▲손바닥 문지르기 ▲손등 문지르기 ▲손바닥 씻기 ▲손등 씻기 ▲손등 문지르기 ▲손등 씻기 등 7가지 쉬운 방법까지 꼼꼼하게 씻는 방법을 익힌다.

하남=전용희 기자 jyw@siminibo.co.kr

# 성남시, 유치원·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경기 성남시는 2026년도 1학기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명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내동 일대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경보구역내 노후 간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동점검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담당 공무원과 경기도

육역공공협회 성남시지부 회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상가 및 유흥업소 인근 도로변 간판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현수막,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했다. 현장에서 즉시 철거가 가능 할 경우 포탈은 신속히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성남=오양희 기자 ows@siminibo.co.kr

# 인천 서구, 주민 자원봉사 기초교육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자원봉사 소양교육으로 '자원봉사의 이해 및 역할'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이용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필수 지식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전문 봉사단 체험활동으로 '요즘살 봉사단'의 우수봉사단기회를 직접 체험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재능과 특성에 맞는 봉사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맞춤형 멘토링은 '매일 열리는 기초교육이 주인공'이어서 봉사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봉사자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매일 정기적으로 기초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특별한 활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문현식 기자 mcs@siminibo.co.kr